

배포 일시	2022. 7. 5.(화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문수 (044-201-3847)
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 박미희 (044-201-4081)
보도일시	2022년 7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5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공-민간 맞손, C-ITS 서비스 확산 힘 모은다

- 5일 C-ITS 데이터 공유·활용 촉진 위한 16개 기관 업무 협약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C-ITS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,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, 이동통신사 등의 기관과 7월 5일 “C-ITS 데이터 공유·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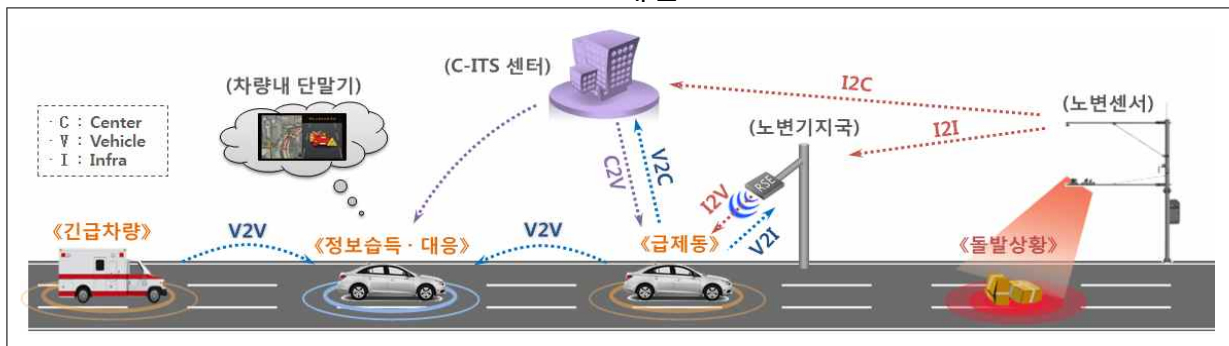
- * (공공)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, 한국도로공사
- * (민간) SK텔레콤(주), LG전자(주), (주)맵퍼스, (주)아이나비시스템즈, (주)LG유플러스, (주)카카오모빌리티, (주)케이티, 티맵모빌리티(주), 현대오토에버(주), (사)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

□ C-ITS(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)는 차량과 차량,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통신 인프라이다.

○ 그간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,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통해 970여km*의 도로 구간에 C-ITS 인프라를 구축하였다.

- * (시범사업) 대전-세종 91km, (실증사업) 서울시 151km, 광주시 183km, 울산시 143km, 제주도 323km, 고속도로 경부선·중부선 일부 85km

< C-ITS 개념도 >



- C-ITS 인프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, 도로 위험 상황 정보 등의 데이터는 민간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

< C-ITS 교통신호 정보 민간 내비게이션 앱 표출 사례 >



- 하지만 C-ITS 데이터의 민관 공유 방식에 대한 표준이 없어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 간 상호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확산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.
- 이에 민관 16개 기관은 신뢰성·호환성이 높은 C-ITS 데이터 공유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, 관련 연구 및 C-ITS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.
-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C-ITS 데이터 공유·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.
- 본 협의체에서는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C-ITS 데이터를 선정하여 표준화하고, 해당 데이터를 C-ITS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앱까지 전송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C-ITS 연계 데이터의 품질 모니터링 방법, 민간 앱에서 부정확한 C-ITS 연계 데이터 표출 시 기관별 대응 절차 등 고품질의 C-IT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후 품질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.

< C-ITS 데이터 민관 공유 체계 >



-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는 신뢰성·호환성이 높은 C-ITS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,
- 국민들은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C-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C-ITS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가 이뤄져 국민들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,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